

지역 소식통

정읍시,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창출로 자립 지원

정읍시가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소득보장으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일자리 제공에 나섰다.

시는 취업 약자인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일반형(행정 도우미) 전일제 35명, 시간제 10명, 참여형(복지 일자리) 66명, 최종중 장애인 공공일자리 10명 등 총 121명이다.

올해부터 신규로 진행되는 최종중 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과 장애인식 개선 활동 등을 통해 노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전복형 권리중심형 일자리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자격은 정읍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이다.

신청 희망자는 필수 제출서류를 지참한 후 정읍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청년농(農)담(談) 2기 발대식 개최**

부안군은 지난 15일 보안면 이례농원에서 이정석 부군수 주재로 청년농업인 소셜벤처기업인 등이 함께하는 간담회 청년농담 2기 발대식을 개최했다.

'청년농담'은 부군수가 주재하며 청년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격월 간담회 형식으로 운영된다.

특히 이날 발대식에서는 오디 농장을 지역대표 융복합사업장으로 탈바꿈시킨 이례농원 박연미, 산업디자인 이진영, 도시양봉가 박진·박찬 형제, 맥주 홉 재배 박상훈, 도시농업모종 안정배출 완충제를 개발한 이훈 간호사 경력 활용 치유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박보경 씨 등 8명의 청년이 참여해 농촌관광부터 6차융복합사업에 이르기까지 농업정책 및 지역 발전에 대해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다. /부안=김석진 기자

# 고창군, '안전한국훈련' 실시

지진·화재 복합재난대응... 실전 대응역량 강화 위해

고창군이 재난 실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18일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고창군과 고창소방서, 고창경찰서, 고창군 자율방재단 등 관내 11개 협업기관 및 단체 약 200여명이 참여했다.

지진으로 인한 건물붕괴 및 화재로 인한 피해상황을 가상 설정해 각 분야별 대응 대책에 대한 실제 훈련이 이

뤄졌다.

오후에 진행된 현장훈련은 고창군 지진발생 이후 고창읍 공설운동장이 붕괴, 건물 붕괴가 화재로 이어지는 상황을 가정해 화재발생과 초기대응, 비상대응, 재난수습 및 복구대응 등의 4단계로 진행됐다.

현장훈련에는 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대한적십자 고창지구협의회, 고창 종합병원, 자원봉사센터 등 유관기관

뿐만 아니라 많은 민간단체 등이 훈련에 참여했다.

고창군은 이날 훈련을 통해 관내 대규모 재난발생시 기관간 통합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고 골든타임내 긴급구조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안전한국훈련이 군민과 각 기관들의 재난대응 역량을 기르고 실제 재난에서의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부안군, '기본형 공익 직불금' 등 317억원 지급

논이모작 등 금주중 지급 계획

부안군은 9,912농가, 14,903ha에 대해 기본형 공익직불금과 논이모작 직불금 317억원을 금주중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쌀값 하락 및 병충해 등으로 농산물 수확량 감소에 따른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예년보다 1개월 앞당겨 지급할 예정으로 이 중 소농직불금은 2,842농가 34억원이며, 면적직불금은 5,532농가 265억원, 논이모작 직불금은 1,538농가 18억원을 지급한다.

올해로 시행 3년째를 맞이하는 기본

형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 직불금, 쌀농업 직불금 조건부직불금 등 6개 직불금 사업을 통합·개편한 제도이다.

기본형 공익 직불제를 통해 0.1ha 재배면적 이하 농가는 소규모 농가의 기준에 적합하면 소농직불금 120만원을 지급하며, 그 외 농업인은 면적 구간별로 차등화된 단가를 적용한 면적직불금을 지급한다.

2022년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자격요건 검증 및 농지형상유지 관리, 농약 안전사용 준수 등 17가지 준수사항 점검을 통해 지급될 예정이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농가의 지급액을 10% 감

액하기로 하였다.

올해는 지난 3월 부터 5월 말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6월 등록증 발급, 7월부터 10월 말까지 대상농지, 농업인, 소농직불금 신청내역 사후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실경작 여부,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을 검토하였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 지원으로 쌀값 하락 및 병충해 피해 등 수확량 감소와 농가 소득 감소의 어려운 시기에 현장을 지키는 농업인에게 도움이 되고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 정읍시, 친환경 농업 확산

유기질비료 지원 12월 8일까지 신청·접수... 내년 1월 공급

정읍시가 토양 비옥도 증진과 토양 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고자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축산물의 자원화와 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유기질비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지원 농지는 신청자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다.

지원 대상 비료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기, 혼합유기질, 유기 복합비료)과 부숙 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으로 해당 비료는 내년 1월부터 공급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유기질비료의 경우 1,600원(20kg기준/포), 부숙 유기질비료는 등급에 따라 1,300~1,600원(20kg 기준/포)이다. 단 신청물량은 1,000㎡ 당

100포/20kg(2,000kg)을 초과할 수 없다.

신청 방법은 12월 8일까지 농지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있는 경우는 각각의 시·군·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해야 하고, 같은 시 여러 읍·면·동에 농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자연 순환 농업의 정착과 토양 환경 보전으로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위해 많은 신청을 바란다"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100포/20kg(2,000kg)을 초과할 수 없다.

신청 방법은 12월 8일까지 농지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농지가 여러 시·군·구에 있는 경우는 각각의 시·군·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해야 하고, 같은 시 여러 읍·면·동에 농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자연 순환 농업의 정착과 토양 환경 보전으로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위해 많은 신청을 바란다"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시농기센터, 미래농업 위한 스마트팜 선진지 견학



정읍시농업기술센터(소장 전정기) 공무원 60명은 지난 14일과 15일(2일간) 미래 첨단 농업시설을 갖춘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견학하고 향후 정읍 농업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스마트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첨단 미래농업 기술을 생산하는 농업혁신의 핵심 국제

사업으로 전국 4개 지역(전북 김제, 경북 상주, 전남 고흥, 경남 밀양)에 조성되어 있다.

김제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청년창업보육센터(유리온실 2.3ha)를 활용, 현장 실습 중심의 국내 최고의 스마트팜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스마트팜 청년창업농 양성에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그 결과 우수·선진교육장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국내외 농업인과 관련 종사자는 물론, 중앙 부처(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 소속 전문 연구·지도관까지 벤치마킹하는 기관으로 매년 방문객이 늘고 있다.

정읍시 농기센터 직원들은 역량강화와 농정업무 추진의 창의성 향상을 위해 혁신밸리 내 대표시설을 순회하면서 스마트팜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

오는 12월에는 농업관련 유관기관과 농업인들과 함께하는 워크숍을 열고 정읍농업의 미래준비를 위한 소통과 협력체계 구축에 나갈 계획이다.

전정기 소장은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농업경쟁비 불안정 등 대내외 농업농촌의 변화 시기에 대응할 수 있는 농업 분야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변화하는 농업농촌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고창군, 2022년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수료식

고창군은 지난 15일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 '2022년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료식은 심덕섭 고창군수, 임정호 고창군의회 의장, 교육청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료증, 개근상 및 공로상 수여 등 새내기 농업학교와 체류형 농업창업교육 통합수료식으로 진행됐다.

'고창군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는 농촌 정착을 희망하는 예비농업인과 귀농·귀촌인들에게 체류 공간과 기초영농교육을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으로

금년에 추진한 새내기 농업학교와 체류형 농업창업교육은 지난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작물 재배 등 기초 영농기술교육, 하우스작물 실습교육, 귀농·귀촌 정책 교육, 현장실습 및 선도농가 견학 등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총 345시간 이상 진행했으며, 60명

의 교육생이 교육을 수료·이수했다.

군은 지난 4년간 109세대의 수료생을 배출하여 그 중 80세대 135명이 고창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담과 안내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도 체류형 입교생 24세대 가운데 12세대 25명이 고창 지역에 정착할 것으로 예상하며, 올해 정착 예정률은 50%로 전망하고 있다.

고창군은 매년 1월 한달간 체류형 입교생을 모집하며, 자격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고창군에 정착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귀촌인이 해당된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도 귀농귀촌의 초석을 다져 온 교육생 여러분의 영광스런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고창군을 찾아온 귀농인 여러분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지원 정책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